

말씀에 비친 현대음악

윤규일



이제 어느덧 40대중반을 갓 넘어선 나에게 '음악'이란 '호흡'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요즘 내 삶의 대부분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작곡자)으로, 연주하는 사람(지휘자)으로 또한 가르치는 사람(교육자)으로 살아간다.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기만 할 따름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은혜롭게 드리는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노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다. 나는 그 받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나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

세상속에서 '윤규일'은 현대음악작곡가로 자리매김하고 살아간다. 현대음악이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와와는 다른 음악으로서 다장조나 바장조같은 조성의 체계가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존의 음악적 구조나 형태를 벗어난 음악으로 볼 수 있고, 아주 다양한 장르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음악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현대음악작품들은 일반적으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와 같은 음악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음악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그 음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 본다면 또 다른 세계의 음악과 생각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현대음악은 '살아있는' 작곡자들의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와 같은 음악은 이미 '지나간' 유물에 불과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대음악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자면 -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음악이 아직도 크게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현대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을 적잖이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차이를 갖게 된 이유에는 창의적 수업이나 음악적 훈련, 사회적 인식등의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상 속에서 현

대음악을 작곡하는 크리스천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찬송가나 CCM같은 것으로는 할 수 없는 또 다른 언어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음악작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한 구조와 매체들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작곡자의 의도만 충분하다면 교회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속에서의 빛과 소금이 되고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이것을 세상의 언어로 음악을 만들어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여기서 나는 현대음악 크리스천작곡가로서 작곡했던 두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바이올린 독주와 앙상블을 위한 '숨'(Breath for Solo Violin and Ensemble)이라는 작품으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인 곡이다. 깊은 골짜기에 있는 마른뼈를 보고 그 뼈들이 다시 맞추어져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는 내용이다.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절정인 부분은 호흡으로 나타나는 '생기(Breath)'일 것이다. 엄청나게 거친 소리를 내며 뼈들이 만나 골격을 이루고, 살이 붙는 기막힌 광경을 지나가지만, 정작 거기에는 '생기가 없었다. 이것은 생명력을 지닌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인간의 형태는 있지만 정작 이를 살아 숨 쉬게 할 수 있는 생기(호흡)이 없다는 것, 즉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전체 이야기의 절정임과 동시에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이다. 그래서 '생기야, 불어 넣어져라'라고 외치는 순간,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하나의 인형과도 불과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극적인 순간을 맞게 된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섭리는 바이올린 독주로 표현되고 있으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피아노는 이야기의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때로는 깊은 계곡에 있는 마른뼈로, 때로는 뼈들의 거친 움직임으로, 때로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의 모습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메조소프라노는 여러 곡 부분에서 내용 전달을 감당하고 있으며, 마지막 가사의 '생기야(Oh, Breath)'는 다시 한 번 '생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며 곡을 마치게 된다.

이 곡을 처음 계획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잘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숨쉬지 않고 있는 듯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우울증환자나 노숙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지만 그 사람은 바로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런 답답한 터널의 숨막힘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생기'를 불러 넣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 작곡된 이 작품을 통해 혹시라도 오늘 우리를 가운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생기'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곡이 작곡되어졌다.

다음 작품은 2012년 4월에 있었던 두 번째 개인작곡발표회에 올렸던 작품으로 클라리넷과 현악사중주를 위한 '가상칠언'(Seven Words on the Cross for Clarinet and String Quartet)이다. 공교롭게도 이 작품은 고난주간을 끝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정말 하나

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다! 이 작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일곱 말씀('가상칠언')을 가지고 만든 작품으로 클라리넷과 현악사중주(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해 작곡되었다. 총 7개의 부분(section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다른 악기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제1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를 토대로,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엣으로 심한 육체적 고통과 용서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 또한 곡 중간에는 무대 뒤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소리도 연출된다. 두 번째 부분은 제2인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를 토대로, 첼로 솔로가 계속된 십자가의 고통의 모습과 더불어 옆에 함께 달렸던 도적에 대한 대답이 들려진다. 세 번째 부분은 제3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를 토대로, 육체적 어머니와 제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처음으로 현악사중주의 작지만 고동스러운 움직임의 연주가 나타나며 마지막부분에서는 무대뒤에서(off stage) 클라리넷이 세 번째 말씀뒤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고통의 침묵'을 표현한다. 네 번째 부분은 제4인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토대로, 모든 악기의 연주

로 영적인 고립감과 심한고통에 대한 절규를 아주 강한 리듬과 화음의 전개를 가지로 있다. 다섯 번째 부분은 제5인 '내가 목마르다'를 토대로, 육체적 고통을 클라리넷과 첼로의 듀엣으로 극단적인 리듬의 움직임과 다이내믹의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음형의 흐름을 통해 '물'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다. 여섯 번째 부분은 제6인 '다 이루었다'를 토대로, 계속되는 육체적 고통에 이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예수님의 선포가 담겨 있는 부분이다. 모든 악기의 강한 제스처들이 그런 선포함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 부분의 마지막부분에서는 찬송가 '내 주는 살아계시고'를 호모포닉한 스타일로 된 형태로 연주한다. 변박자로 이루어져 음악의 호흡을 달리하는 기법과 선율에서의 변주가 보이지만 찬송의 원래 모습은 느낄 수 있도록 변주되어 있다. 일곱 번째이자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인 제7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를 토대로, 고통으로 점철된 맥박의 소리를 느끼게 하는 오스티나토(ostinato)의 음악적표현을 기본패턴으로 유지하고 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나마 규칙적으로 울리던 것이 점차 그 소리가 희박해지고, 불규칙하게 나타나다 죽음을 의미하는 듯한 침묵과 점점 느리면서 사라지는 음악적표현을 통해 십자가상의 고통의 끝을 느끼게 한다.

이 작품은 처절한 고통의 상황속에서도 용서, 위로, 육체적 고통, 승리의 선포등을 짧지만 분명히 전달한 일곱 개의 말들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비단 2천년전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현대적인 음악어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슬픔, 미움, 혼란스러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처럼 기쁨, 감사, 평온함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곡되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나로서는 이 작품을 내 신앙고백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한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함을 담아 노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바른'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속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바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속에서의 삶이 분리된다는 뜻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음악인으로서 특별히 현대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작품속에 내재시키고 그것들을 세상에 내 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교회안에서의 음악의 언어를 넘어서 세상속에서 사용되는 음악적 표현과 몸짓으로 다가가고 싶은 것이다. 난 아직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바른 빛과소금의 현대음악을 만들어 세상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자로 설 수 있기를 갈망한다. 세상의 음악이 사탄송배하는 악한자들의 도구로 사용되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맞서 싸울 수 있는 영향력있는 음악들을 작곡하고 나가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들을 교회와 세상과 열방속에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시고 이미 허락하고 계신 생기의 임재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 짧은 글을 통해 나의 생각과 음악의 삶을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우리 모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윤규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음악대학원 작곡과에서 석사와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음악대학원 작곡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2014 ISCM 국제현대음악제(폴란드 개최) 한국대표로 선정되었으며,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음악대학 산하 컴퓨터음악연구소 (CCRMA, Center for Computer Research in Music and Acoustics) Visiting Scholar를 역임하였다. 현, 경희대, 중앙대, 경북대, 강원원주대 출강중이다.